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에너지와 산업



인터뷰 :

에너지관리공단 서택규 부장과의 만남



I/D/I/소/식



2010 인천광역시 사회
복지 정책토론회
우리연구원(원장 이창
구)이 주최하고 인천광
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가 후원하...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포럼] 2010 녹색성장
포럼 개최(7.27):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Zoom INcheon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검푸른 섬, 대청도
인천연안부두에서 백
령도행 쾌속선을 타고
4시간을 달려오면 서
해 최북단에...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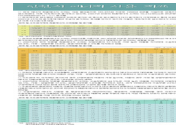
미국 1위의 그린시티,
포틀랜드
미국의 부시 전 행정
부가 기후변화 방지
노력의 '걸림돌'로 지
탄받는 동...

IDI연구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
색마을 조성 위한 적
용가능 모델 검토
○ 일본 및 독일 등 선
진국에서는 하수슬러
지, 음식물쓰레기, 가
축분뇨,...

인천지표



인천시 에너지 사용
지표
○ 전국 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는 석유
환산톤으로 181,455
로 19...

에너지와 산업

인천환경보전협회 이찬우 과장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녹색성장은 30여년 지속된 글로벌 이슈인 ①자원고갈, ②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③녹색보호무역주의, ④녹색소비에 대한 글로벌화라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녹색정책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신성장 또는 구조 고도화 정책과 유사하다. 단지 새로운 것은 온실가스라는 국제지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이라함은 새로운 '아젠다'라기 보다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녹색성장의 특징은 규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이다. 국가별 탄소규제는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동반하는 간접규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최저 에너지효율제도 등과 같은 직접규제가 있다. 탄소규제의 특징은 온실가스를 눈에 보이게 하고 감축시키는 제도임에도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다른 오염물질처럼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 처리할 수 있는 입증된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 운영방식에 대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이 기존 기술을 와해시키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을 형성한다.

또 한 가지 탄소규제의 특징은 글로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온실가스가 지역적인 오염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구환경문제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따라서 국제적 합의, 국제적인 프로토콜, 국제기구의 역할, 무역관련 조치들과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듯 탄소규제는 시행국가의 산업구조, 에너지MIX, 무역구조, 경제성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면서 자국내 산업을 녹색화 하느냐가 핵심이다. 결국 글로벌 녹색경주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률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새로운 경쟁률속에서 산업계는 단순히 융합·와해성 기술의 변화만 추구하지 않는다. 경영에 대한 외부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탄소가격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업은 정보공개와 성과검증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게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에너지 감축성과 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시킬 것이다. 조금 확대해석하자면 이제 도시는 기업에게 입지여건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고객인 동시에 파트너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사회적인 편익으로 이끌어 내려면 녹색소비와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소비가 기업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결정하는 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소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해외시장으로 누출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녹색기술이 반드시 생태적인 것은 아니며 아직도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이 도시에 제공했던 전통적인 역할인 고용창출과 기술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린비즈니스가 대기업만의 잔치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도 있다. 그린비즈니스라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부품과 부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동시에 육성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린카를 보급하면서 도시스마트 기능을 높이는 것도 결국 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상업과 도시가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요인은 지방정부의 정책이다

도시를 이루는 먹이사슬에 시민, 산업, 교통, 복지 등의 관계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용 못지않은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경, 칼룬보르, 프라이부르크, 보고타, 꾸리찌바 등 여러 도시에서 실험에 성공한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 자산에 대한 관리가 보이는 재무자산의 관리보다 장기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새로운 시장 역시 이렇게 독특한 기업의 전략적 시장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역시도 막연한 규제 폐지가 아니라 독특한 규제를 만들어 지역별 산업구조와 취약성에 맞는 창의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핵가족화 되고 1인 가구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술의 첨단화는 신제품을 쏟아내고 상상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지만 더 커진 화면과 인공지능을 위해 아무리 효율이 좋아져도 절대적인 전기 사용량은 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녹색기술 개발과 중앙정부의 야심찬 정책만으로는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시민의 녹색요구와 도시의 작은 실험에 대한 성공과 실패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녹색성장은 30여년 지속된 글로벌 이슈인 ①자원고갈, ②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③녹색보호무역주의, ④녹색소비에 대한 글로벌화라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녹색정책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신성장 또는 구조 고도화 정책과 유사하다. 단지 새로운 것은 온실가스라는 국제지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이라함은 새로운 '아젠다'라기 보다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탄소중립 아일랜드 조성으로 '에너지절약형도시, 인천' 만들어야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탄소중립 아일랜드 조성으로 '에너지절약형도시, 인천' 만들어야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8호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과 사업 등을 알아보고자 에너지관리공단의 선택규 지역에너지부장을 만나 인천시의 에너지 특성 및 에너지 저소비 관련 사업과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았다.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에너지관리공단 경인센터 인천지사
선택규 지역에너지부장

Q. 먼저 인천시 에너지 특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3,964 만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에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가 많아 인천시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부문이 61%, 산업부문이 19%, 수송부문이 19%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에너지부문의 향후 과제는 발전부문의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저소비 관련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진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다소비업체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0,000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에너지낭비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노후설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세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상업부문에 있어서도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최소화 시킨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에너지사용량이 폭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단 인천지사가 주도하여 국내 최초로 신개념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스포츠부문에 도입하여 인천시, SK 와이번스야구단, 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문학야구장에서 경기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중립화 시키는 운동의 하나인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천시에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 사업이 있는지요.

정부에서는 2020년 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주택을 100만호를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설치비용이 고가이므로 일반인이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자부담 50%의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그린홈 보급활성화를 위해 시와 협조하여 자부담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여 자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 30㎡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2,000만원인데 정부보조금 1,000만원에 시보조금을 400만원 더 보조하여 주면 자부담은 6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Q.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공단에서는 수년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조명기기를 고효율조명 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에너지도 절약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 사회에도 공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를 최대 10%정도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포인트는 냉난방온도 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냉난방온도를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냉난방기의 효율개선이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테면 노후 냉난방기설비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할때 교체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시행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천시에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지역이 많은 인천시의 특성을 살려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표적인 도시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집중 보급, 탄소중립 아일랜드를 만들어 랜드마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인천시로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은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강구와 더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녹지가 적어 자연환경이 열악한 인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탄소중립숲을 시 전역에 적극적으로 조성,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담 : 김도희(도시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 기록 : 정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뜨리에’ 48호에서는 에너지절약형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과 사업 등을 알아보고자 에너지관리공단의 서택규 지역에너지부장을 만나 인천시의 에너지 특성 및 에너지 저소비 관련 사업과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201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발전방향 “201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우리연구원장 이창규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그 동안의 지역사회복지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현황과 관련된 사례의 함의를 통해 향후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사회복지의 성과와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현황과 발전방향’, ‘광역자치체 사회복지정책사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사례’ 등의 세부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으며, 이는 향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기회가 되었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해법: 돌봄의 사회화 “2010 여성의제토론회”

우리연구원장 이창규이 주최하고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광역시는 여성주관을 맞아 지난 8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돌봄의 사회화: 근대와 책임’을 주제로 2010 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의제토론회는 한국의 돌봄정책, 보육정책 및 인천시의 보육특성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를 비롯하여 타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연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토론 또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천여성정책센터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요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제4호

인천연구

논문 모 집 합 니 다 !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인천지역 학술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천연구의 구성은 <기획논단>과 <지역연구>의 두부분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획논단>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필진을 선정하여 집필의뢰가 이루어지며, <지역연구>는 자유투고 논문을 선별하여 게재하게 됩니다.

● 모집원고 종류

지역연구부문의 자유투고형식의 인천에 관련된 논문으로, 타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기고된 논문은 다시 기고할 수 없습니다.

● 원고작성방법

원고는 필히 ‘인천연구’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편집규정참고 원고 제출 시 인천연구 투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보내야 정식접수가 됩니다.

● 원고분량

원고지 100장 이내

- 원고제출기간
2010년 8월 31일
- 원고제출처
우편접수 : 우) 404-190 인천시 서구 심곡로168 인천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인천연구' 담당자 앞
이메일접수 : sabine@idi.re.kr
- 문의사항
TEL : 032-260-2623

*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연구원(원장 이창구)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그 동안의 지역사회복지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현황과 관련된 사례의 함의를 통해 향후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포럼] 2010 녹색성장포럼 개최(7.27):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포럼] 「2010 그린국토포럼」정기 포럼 개최(7.27):국토연구원 031-380-0114

◆[포럼] 「국토 대예측 연구(II)」미래국토포럼 개최(7.30):국토연구원 031-380-0114

◆[포럼] 2010 녹색성장포럼 개최(7.27):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

[포럼] 「2010 그린국토포럼」 정기 포럼 개최(7.27):국토연구원 031-380-0114 ◆

[포럼] 「국토 대예측 연구(II)」 미래국토포럼 개최(7.30):국토연구원 031-380-0114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검푸른 섬, 대청도

가좌고등학교 정재영 교사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검푸른 섬 대청도



적송, 모래 해변, 바다낚시의 고향

매혹의 저음가수 배호가 노래한 “대청도 아가씨”의 섬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무대로 한 최고의 러브스토리 이인화 소설 “사인의 별”의 섬
우리나라 최고의 고래 생산기지, 참돔어의 최대 산지, 바다낚시의 최대 황금어장의 섬
‘하늘에 내린 지상의 낙원’, ‘천혜의 청정지역’, ‘서해안의 절대명승지’라는 별칭의 섬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행 쾌속선을 타고 4시간을 달려오면 서해 최북단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로 이루어진 대청군도가 나타나는데 그 중심의 섬이 대청도이다. 백령도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지만 예로부터 서해의 해중산인 삼각산(354m)을 기점으로 이 지역의 중심이었다. 일제시대 서해 최대의 고래잡이 포경기지가 있었고, 지금도 대청군도의 최대 피난 항구는 선진포구이고, 해경 및 해군기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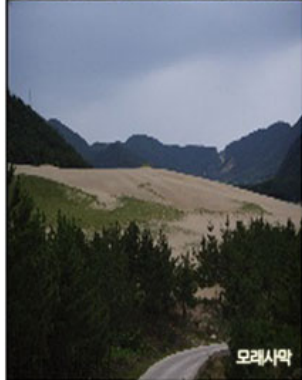
전국 최고 품질의 적송군락지분포

1799년 경조대왕이 대청도, 소청도를 수원부로 편입시키게 된다. 그 당시 나라 안에서는 ‘대청도는 최상급의 소나무가 자라기로 유명하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었다. 그 유명세로 인해 왕실에서는 약 다라는데 사용되는 솥을 대청도에서 만들어 상납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또한 원나라 마지막 황제 순제가 태자시절 대청도로 유배를 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은 옥죽포였다. 지금의 양지동에 자리를 잡고 대궐을 지었는데, 어쩌나 나무가 무성했던지 옥죽포에서 궁궐까지 오는 시일이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아 대청도의 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는가를 알 수 있겠다. 현재 고주동의 공동묘지 아래쪽에 ‘솥굴’이라는 곳이 옛날 솥을 굽던 굴짜기이었다고 한다. 대청 솥가마 터의 발굴이 기대되는 곳이다.

대청도에는 200여년 이상된 적송 보호 구역이 축동과 사탄동에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청도는 가파른 절벽으로 섬 전체가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맞닿은 곳에는 곳곳에 적송 군락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다. 최근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 중에 고가의 고급 화장품의 재료로서 여성의 몸에 좋다는 적송을 구하기 위해



농어



모래사막



물내란굴_비경



사막체험



사탄포구_조각배



지두리 해수욕장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청정지역인 대청도의 적송이 최고의 품질임을 확인하고 이를 주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남태평양이며 하와이 모래 해변의 백화점

대청도의 자랑거리는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섬 주변 모두가 모래 해수욕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혜의 휴양지라는 점이다. 동해바다나 남태평양의 어느 해변에 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곳이다. 감청색 바다 빛, 고운 모래, 서해지만 이 곳 대청도에는 개펄이 없고 모두 모래해변인 것이 신기하고 멋지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면 대청도의 모래해변의 가치는 새롭게 평가될 것이다. 특히 사탄해수욕장은 우리나라 10대 해수욕장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바. 대청도에서는 오히려 그 외의 농어, 미아, 답동, 지두리, 옥죽동, 대진동 해변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모든 해변에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아 물이 빠지는 썰물 때면 잠깐 동안 많은 골뱅이를 주을 수 있다. 이것도 이곳만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다. 대청도 주민의 가장 사랑받는 해변은 지두리이다. 이 곳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듯하게 양쪽 해안 경사면이 잘 발달되어 있고 3km의 일자형 해변이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어 대청 주민들이 여름철에 가장 즐겨 찾는 해수욕장이다. 최신 시설의 샤워장,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해변이 잘 발달되어 있어 '파도타기'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석양의 낙조를 감상하기에 기가 막힌 장소이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 태양의 기운을 받아 온통 금빛 물결로 출렁이는 바다,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이다. 미아동 해수욕장은 참으로 아담하고 정겨운 곳이다. 4~5팀의 가족단위로 전용해변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해변이다. 역시 경사도가 완만하고 잔잔한 곳이다. 사탄동 해수욕장은 200여년 이상된 적송이 아름다리 군락을 이루고 있어 국내 10대 해수욕장으로 이름난 곳이다.

바다 낚시의 황금어장과 갯바위 낚시의 천국

대청도 주변 해역은 평균 수심이 70~80m으로 서해안에서 깊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청도 서쪽에는 해저 암반층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황금어장으로서 갈매기덕, 중덕, 덕반이, 세덕, 문달이 등이 수심 30m~60m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바다 낚시의 최고 어장으로서 좋은 물때에는 많은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 대청도는 섬 주변의 갯바위들이 모두 천혜의 낚시터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으로 독바위, 기름항아리, 부치미, 검은낭, 지두리원창 오랜창 선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섬 주변 바닥에 바위와 돌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어종은 물론 전복, 해삼, 성게의 생산지로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불법 채취에 따른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천으로 널려 있는 자연산 홍합이나 고동의 채취는 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맛있고 소중한 체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사하라 - 모래사막

검은낭 큰산(206m) 북쪽에 있는 옥죽동은 북풍반이로서 밀물에 몰고 들어와 쌓인 모래는 썰물 때 햇빛이나 바람에 잘 마른다. 이와 같이 잘 말라 은빛같이 희고 고운 모래는 북풍만 좀 불어도 눈 날리듯 날아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가 쌓이게 되면서 모래사막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막은 없지만 고비사막이나 사하라사막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겨울에 눈이 쌓인 산처럼 하얀 모래산이 산등성 중간에 쌓여져 있어 절경을 이루는 명물 중에 명물이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가로 3km, 세로 2km, 높이 100m이상의 넓은



모래시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바람에 따라 계절마다 다양한 진풍경을 연출한다. 해수욕장을 가기 전에 모래 설매 타기, 지옥의 레이스, 모래찜질, 옆 구르기 등 다양한 시막 체험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해 바다의 해중산 삼각산

서해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둘러싸인 삼각산(354m)은 서해 바다의 해중산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대청도 전체를 감상할 수 있음은 물론 백령도, 소청도 그리고 멀리 북한 땅까지 훤히 관망할 수 있는 곳이다. 역시 높은 산이 있어 섬이지만 물 사정이 좋고 물맛도 일품이다.

삼각산이란, 이름은 '서울산'을 한자로 나타낸 것으로 대청도가 주변 섬 지역을 관할하던 으뜸 되는 곳이며, 부족국가의 군장이 있던 곳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조설화인 신항이 이야기의 근원이 원순제 유배에서 출발되었듯이 원나라의 황제가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삼각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삼각산 봉우리의 철탐에 각종 안테나가 설치되어 서해 5도의 전파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다양한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어 1~2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각종 토종음식 체험하기

▲ 육고기 및 음식 - 흑염소, 오골계, 토종닭, 보신탕, 대잎주, 찐치떡, 개피떡, 썩개떡, 선지순대 등

▲ 홍어회, 홍어 알찜, 각종 생선회, 우럭내장백숙, 삼치회, 삼치구이, 꺾죽이 알무침, 꺾죽이 매운탕, 성계칼국수, 성계비빔밥, 홍합된장찌개, 해삼 물회, 전복, 해삼, 성계, 굴, 홍합 등

방목하는 흑염소, 오골계, 토종닭은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매우 달다. 흑염소들은 사람이 가질 못하는 절벽에서도 뛰어다닌다. 마치 산양과도 같다. 그리고 각종 종다는 약초를 다 먹고 심지어, 솔잎이나, 썩고 먹고 산다. 그래서 가을 염소는 육질에서 썩향이 난다고 한다. 토종닭도 얼마나 빠르고 영악한지 낮에는 잡히질 않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녁에 잡자는 농을 잡아야 할 정도이다. 공기와 물이 좋아서 인지 보신탕도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다. 대청도에는 의외로 세죽나무가 집집마다 그리고 산에 많이 있다. 커다란 대잎을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고 세죽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의 깊이가 새롭다. 대청 홍어 절해고도의 섬에서는 바다고기가 역시 왕이다. 과거에는 꽃게도 좋았고, 고래 포경기지가 있을 정도로 고래 고기도 유명했지만, 지금 현재는 홍어가 당연 으뜸이다. 국내산 홍어를 생물 회로 먹을 수 있는 곳은 대청도 뿐이다. 위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음식점의 상설 메뉴를 이용하시고 아니면 사전에 주문하면 물때에 따라 싱싱한 것을 제 때에 맛보실 수 있다. 또는 민박집에 부탁하면 그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랑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한국의 그랜드캐년 말구리, 농어들의 고향 '물내린 골'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섬일주 크래킹하기, 유격부대 주둔지, 분단의 상처 위령탑, 대청도 관련 역사와 전통에 대한 안내, 대청가요, 소설, 시, 안내지도 등 기타 다양한 정보가 대청도사이버탐방(<http://daechungdo.idmh.hs.kr/>) 소개되어 있으니 많이 참고하기 바란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행 쾌속선을 타고 4시간을 달려오면 서해 최북단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로 이루어진 대청군도가 나타나는데 그 중심의 섬이 대청도이다. 백령도의 유명세에 가리워져 있지만 예로부터 서해의 해중산인 삼각산(354m)을 기점으로 이 지역의 중심이었다. 일제시대 서해 최대의 고래잡이 포경기지가 있었고, 지금도 대청군도의 최대 피난 항구는 선진포구이고, 해경 및 해군기지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미국 1위의 그린시티, 포틀랜드

도시환경연구실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미국 1위의 그린시티, 포틀랜드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가 기후변화 방지 노력의 '걸림돌'로 지탄받는 동안, 미국의 도시들은 연방정부에 앞서 녹색혁명을 향해 뛰어 왔다. 2009년 9월 현재 미국인 8,500여만명이 거주하는 971개 도시의 시장들이 '미국 시장 기후보호협정(U.S.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에 서명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린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시장 기후보호협정을 주도했던 시애틀과 클린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경제개발촉진기금' 300만 달러를 조성한 새너제이, 하이브리드차 보급비율이 가장 높은(2008년 기준 주민 1,000명당 12.17대) 포틀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월래멧 강변에 있는 주 최대 도시이며, 워싱턴 주 밴쿠버 정남쪽, 월래멧 강과 컬럼비아 강의 합류점 근처에 위치한다. 원래 인디언들의 야영지였기 때문에 'Multnomah Falls' 등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환경적으로도 다양하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골드러시와 농림산물 위주의 상업 중심지로 발전해왔고 태평양 연안의 대표적인 산업기지로 발달한 까닭에, 예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자원과 환경자산만으로는 미국 도시 중 랭킹 1위의 녹색도시(Green City)로 공인받을 수 없었다. 에너지 분석가인 로버트 허쉬(Robert Hirsch) 박사가 그의 보고서에서 "석유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값싼 석유, 풍부한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Multnomah 폭포, 위쪽 165.2m, 아래쪽 21m.〉

이후,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는 2006년 피크 오일을 대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주 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피크 오일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었고, 이들은 2025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00년대 이후 철도를 없애며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미국이지만, 포틀랜드는 최근 도로 건설에 책정된 예산을 전환하여 스트리트 카 철로를 확장하는 데 쓰고 있다.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틀랜드 도심에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상전차 스트리트 카를 운행하고 있는데, 경전철보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 건물 사이 좁은 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언덕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케이블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실현에 옮기기도 했다. 에어 트램(air tram)으로 불리는 이 케이블카는 연간 100만명의 시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철과 스트리트 카, 케이블카 등이 대중교통의 탈석유를 위해 대안처럼 등장했고 도로 한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겨났다.



포틀랜드시 지속가능개발국은 단순히 자전거 도로 확충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우선적인 배려를 위해 주요 교차로에 자동차 정차 공간 앞에 '녹색공간(Green Space)'이라 부르는 자전거 정차공간(Bike Box)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전거 지도를 제작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포틀랜드 시민들의 의식은 고소독의 변호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포틀랜드시는 교통체계에 녹색 바람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한데, 자동차를 공동 사용하는 'Zipcar'라는 차량 공유이용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되었다. 최근엔 아이폰을 이용한 Zipcar의 위치추적 및 이용서비스까지 개발되었다고 한다. 포틀랜드 시민들은 자가용이 없어도 언제든지 자동차를 잠시 빌려 쓰는 서비스 접속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동차 1대를 공유하는 사람은 평균 35명이라고 하며,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주행거리가 90% 줄었다고 한다.

포틀랜드시는 친환경의 메카로 인식되어 왔으며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포틀랜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을 채택한 미국 내 첫 도시이며, 2007년까지 1990년 기준 17% 감축에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적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는 모든 시의 시설물 운영을 위한 동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교체할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모든 신호등을 LED로 대체하여 3%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ERA Architects, The New York Times Jan. 31, 2010>

특히 포틀랜드는 지속가능한 실전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살충제 사용을 없애기 위하여 시는 풀깎기에 직원들을 도울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년간 3개 공원에서 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이후, 2개 공원 운영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변화들을 시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살충제 없는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포틀랜드는 2010년 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조달청(G.S.A)은 포틀랜드의 청사 서쪽 벽에 1,330만 달러를 들여 61m 이상 높이로 식물을 뿜어지게 하여 건물 벽 정원을 조성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새 건물 시공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우천 시 옥상에 물을 저장했다가 관수할 수도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빌딩에 비해 60~65% 정도이며, 연간 28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2002년 이후 포틀랜드 항만의 겐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나 리치스태커(Reach Stacker)와 같은 대형장비에도 바이오디젤을 공급하여 환경오염도 줄여왔고 항만 내부의 자동차를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로 교환하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포틀랜드 공항은 태양광 집열판 설치를 통하여 100%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공항시설 내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202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도시의 교통체계와 대중교통, 건물 등 도심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항만과 공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는 포틀랜드의 노력은 인천광역시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많은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가 기후변화 방지 노력의 '걸림돌'로 지탄받는 동안, 미국의 도시들은 연방정부에 앞서 녹색혁명을 향해 뛰어 왔다. 2009년 9월 현재 미국인 8,500여만 명이 거주하는 971개 도시의 시장들이 '미국 시장 기후보호협정(U.S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에 서명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린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시장 기후보호협정을 주도했던 시애틀과 클린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경제개발촉진기금' 300만 달러를 조성한 새너제이, 하이브리드차 보급비율이 가장 높은(2008년 기준 주민 1,000명당 12.17대) 포틀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적용가능 모델 검토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일본 및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산림 및 농업부산물 등을 이용한 "자립형 바이오타운"을 조성하는 추세임.
- 이에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에 "저탄소 녹색마을"을 2020년까지 600개 조성하여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40% 까지 제고할 계획임.
- 저탄소 녹색마을이란 미활용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및 자연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및 자원화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 및 자원순환성을 높인 탄소중립 친환경 마을을 의미함.
- 녹색마을의 주요 사업은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화, 어류가공부산물 및 산림임업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 자연에너지 사업 등이 있음.
- 2012년까지 전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별로 마을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

녹색마을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방안

시범사업 유형	활용분야	적용방안	주관부처
도시형	폐자원, 바이오매스	시(市)지역의 동을 기준으로 하되 1,000가구 이내로서 농촌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	환경부
농촌형	바이오매스, 자연력	읍(邑) 또는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500가구 이내로서 도시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	농식품부
도농 복합형	폐자원, 바이오매스, 자연력	시(市) 또는 읍(邑)지역의 동·리를 기준으로 하되 1,000가구 이내로서 도시·농촌지역이 포함되는 지역	행안부
산촌형	바이오매스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 이내로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	산림청
어촌형 (도서)	폐자원, 자연력	읍(邑) 또는 면(面)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 이내로서 해안지역(도서지역 포함)	농식품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도시지역, 강화군과 옹진군의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가능성과 사업계획을 검토함.

II. 각 구·군의 특성을 고려한 녹색마을 적용 가능성 검토

- 녹색마을의 주 에너지원인 음폐수, 가축분뇨, 농부산물, 임목부산물의 자원잠재량을 기준으로 인천시 각 구·군별 녹색마을 도입가능성 분석.
- 음식물류폐기물의 이용가능량은 부평구, 남동구, 남구, 계양구, 연수구, 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낮게 조사됨.
- 가축분뇨는 가축사육수가 많은 강화군이 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3,701.1TOE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 539.8TOE, 계양구 338.8TOE로 비교적 높은 잠재량을 보임.
-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형 녹색마을은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화군은 바이오매스(음폐수, 가축분뇨, 농부산물, 임목부산물)가 풍부하고, 자연력의 도입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도농복합형과 농촌형 녹색마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옹진군은 농어촌형 녹색마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단위의 집중형 취락지를 중심으로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화와 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인천시 각 구·군별 녹색마을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구분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유형	도시형	도시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어촌형(도서)
에너지원	폐자원 음폐수	폐자원 음폐수	폐자원 음폐수	바이오매스 자연력	폐자원(폐고물) 자연력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 에너지 사용 지표

○ 전국 에너지 최종에너지 소비는 석유 환산톤으로 181,455천 TOE로 1998년 IMF를 기점으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인천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0,252천toe로 전년대비(10,068천toe) 약 1.8% 증가함.

○ 전국적으로 감소했던 1998년 인천과 경기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인천은 2001년 25%의 증가후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다시증가추세임.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천 TOE,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132,128 (-8.5)	143,060 (8.3)	149,852 (4.7)	152,950 (2.1)	160,451 (4.9)	163,995 (2.2)	166,009 (1.2)	170,854 (2.9)	173,584 (1.5)	181,455 (4.5)
서울	16,733 (-15.4)	17,082 (2.1)	16,450 (-3.7)	15,402 (-6.4)	15,004 (-2.6)	14,777 (-1.5)	15,062 (1.9)	15,182 (0.8)	15,586 (2.7)	16,008 (2.7)
인천	5,808 (-17.1)	6,304 (8.5)	7,209 (14.4)	9,059 (25.7)	9,227 (1.9)	9,320 (1.0)	9,397 (0.8)	10,324 (9.9)	10,068 (-2.5)	10,252 (1.8)
경기	14,374 (-13.2)	16,259 (13.1)	17,058 (4.9)	17,946 (5.2)	20,011 (11.5)	20,671 (3.3)	21,495 (4.0)	23,348 (8.6)	23,026 (-1.4)	23,578 (2.4)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8

○ 전국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7년을 기준으로 181,456천 TOE로 전년대비(173,584천toe) 약 4.5%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부문별 에너지는 약간의 증감을 보이나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의 전국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수송부문 20.4%, 가정·상업부문 19.8%, 공공기타부문 2.3%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천 TOE, %)

연도	합계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공공·기타부문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1998	132,128	76,039		57.5	27,418		20.8	26,184		19.8	2,487		1.9
1999	143,061	79,858	5.0	55.8	31,930	16.5	22.3	28,625	9.3	20.0	2,648	6.5	1.9
2000	149,853	83,912	5.1	56.0	32,370	1.4	21.6	30,945	8.1	20.7	2,626	-0.8	1.8
2001	152,950	85,159	1.5	55.7	32,893	1.6	21.5	31,909	3.1	20.9	2,989	13.9	2.0
2002	160,451	89,198	4.7	55.6	34,298	4.3	21.4	33,763	5.8	21.0	3,192	6.8	2.0
2003	163,996	90,805	1.8	55.4	34,965	1.9	21.3	34,633	2.6	21.1	3,593	12.6	2.2
2004	166,010	92,993	2.4	56.0	34,807	-0.5	21.0	34,616	0.0	20.9	3,595	0.0	2.2
2005	170,855	94,366	1.5	55.2	36,861	5.9	21.6	35,559	2.7	20.8	4,068	13.2	2.4
2006	173,584	97,235	3.0	56.0	35,996	-2.4	20.7	36,527	2.7	21.0	3,896	-5.7	2.2
2007	181,456	104,327	7.3	57.5	35,917	-0.2	19.8	37,068	1.5	20.4	4,144	8.0	2.3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결핵 통계연보, 2008

○ 인천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은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이 80%로서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부문별 에너지의 비중은 산업, 가정·상업부문에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의 타 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서울의 경우 가정 및 상업부분에서의 에너지 사용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Data 생략)

○ 2007년의 인천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수송부문이 4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산업부문 57.5%, 가정·상업부문 19.8%, 공공기타부문 2.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 100만toe의 수송부문 44.5%의

36.1%, 가정·상업부문 17.6%, 항공기타부문 1.8%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1998년도의 수송부문 23%의 구성비에서 10년 뒤인 현재 44%의 2배이상의 구성비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수송부문은 일반적인 자동차 사용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아닌 항만과 공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특히 공항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타지자체와 대응방법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중 항공부분으로 예상되어지는 항공류의 사용량을 제외할 경우 인천시의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약 20%로 감소하기 때문에 공항 부분의 에너지 저감 대책이 인천시 전체 에너지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Data 생략)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천 TOE, %)												
연도	합계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항공·기타부문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1998	5,668	2,811		49.6	1,486		26.2	1,302		23.0	69	1.2
1999	6,183	2,985	6.2	48.3	1,716	15.5	27.8	1,401	7.6	22.7	81	17.4
2000	7,069	3,155	5.7	44.6	1,576	-8.2	22.3	2,247	60.4	31.8	91	12.3
2001	8,901	3,628	15.0	40.8	1,585	1.2	17.9	3,495	55.5	39.3	183	101.1
2002	9,227	3,574	-1.5	38.7	1,719	7.8	18.6	3,820	9.3	41.4	114	-37.7
2003	9,320	3,747	4.8	40.2	1,704	-0.9	18.3	3,715	-2.7	39.9	154	35.1
2004	9,398	3,549	-5.3	37.8	1,727	1.3	18.4	3,959	6.6	42.1	163	5.8
2005	10,324	3,720	4.8	36.0	1,823	5.6	17.7	4,629	16.9	44.8	152	-6.7
2006	10,068	3,642	-2.1	36.2	1,793	-1.6	17.8	4,470	-3.4	44.4	164	7.9
2007	10,252	3,699	1.6	36.1	1,806	0.7	17.6	4,561	2.0	44.5	186	13.4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에너지 백서, 2008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8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통계연보, 2009

○ 전국 에너지 최종에너지 소비는 석유 환산톤으로 181,455로 1998년 IMF를 기점으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인천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0,252 천toe로 전년대비 (10,068천toe) 약 1.8% 증가함. ○ 전국적으로 감소했던 1998년 인천과 경기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인천은 2001년 25%의 증가후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다시증가추세임.